

『향약구급방』에 나타난 침구법과 외치법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고찰

고대원 · 차웅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Search of the Contents and Characterisitcs of Acupuncture-moxibustion and External Treatments in 『HangYakGuGeupBang』

Dae-Won Ko, Woong-Seuk Cha

Dep.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HangYak” and “GuGeupBang” were used as a book title in 『HangYakGuGeupBang』. Therefore we can examine the early years of the medical of HangYak and the medical of first-aid.

Methods : We studied the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cupuncture and External treatments which were presented in 『HangYakGuGeupBang』. We searched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publishing it too. According to 『HangYakGuGeupBang』.

Results : Acupuncture was performed as a simple external treatment; however moxibustion was used for various symptoms in several ways. In addition, many external treatments such as hot massages, the treatment of bath and dropping lotion in the eyes were introduced in 『HangYakGuGeupBang』. We believe that these materials were easily gotten around us so people who lived in a poor and remote village without a doctor could apply with ease if they learned these contents.

Conclusions : As a result it can say that 『HangYakGuGeupBang』 was published as a practical book which could be used simply even though people didn't have enough medical knowledge nor examined inside and outside-heat and cold.

Key words : HangYakGuGeupBang, Acupuncture-moxibustion, external treatments

1. 서 론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은 책 제목에 향약과 구급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는 향약의학과 우리나라 구급의학을 잇는 현존 최고(最古)의 향약구급방서로 향약의학과 구급의학서의 초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중기부터 조선 초기

까지의 의료수준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¹⁾ 되기에 일찍부터 학계의 관심을 받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한 『향약구급방』의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영일은 『향약구급방』은 의사를 교육하거나 의사에게 임혀져 의학이론을 연구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단지 궁촌벽향의 의사가 없는 곳에서도 일반 대중 누구에게나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급법을 모아놓은 민간구급방²⁾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자하가 중간한 『향약구급방』에 나온 발문(跋

· 교신저자: 차웅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2-961-9446, Fax. 02-965-5969
E-mail: chawung@khu.ac.kr

· 투고 : 2010/11/22 심사 : 2010/12/08 채택 : 2010/12/13

文)에 근거하고 있다. 김두중은 본서가 찬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마 그 당시 민간 고로(古老)들이 구급에 상용하던 향약경험방을 고종 23년경(1236년경)에 피란의 강도(江都) 강화도 대장도감에서 장경(藏經)을 조각한 여가에 수집 간행한 것³⁾으로 추측하고 있다^{4,5)}. 이는 『향약구급방』을 그저 민간의학 수준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현숙은 본서를 중국의 약재를 수입할 수 없었던 몽고 전란기 상황에서 약재의 구성을 향약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지배층을 위한 구급의학서⁶⁾라고 평가하고 있다. 단지 동사(凍死)에 대한 설명이 없고 술중독, 여드름, 기미, 액취증이 있고, 금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문헌과 사료의 부족으로 『향약구급방』으로만 고려시대의 의학의 수준을 논하거나, 책의 내용 중 일부만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책이 쓰여 질 때는 그 시대의 모든 의학 지식을 반영하기보다는 책을 읽는 독자를 고려하고 책의 편찬을 통해 얻으려는 목적에 충실하고자 할 것이다. 그동안 향약의 처방용법을 중심으로 향약의학의 연구¹⁰⁾와 『의방유취』 치법편의 구성과 특징 연구¹¹⁾를 통해서 고려에서 조선전기로 이어지는 향약의학과 침구법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고려시대 구급의학서에 보이는 침구법과 외치법의 실제적 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이를 위해서 『향약구급방』에 보이는 침구법과 외치법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간행의 실용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행히 『향약구급방』은 신영일의 논문에서 정밀한 복원이 이루어져 있다. 한의고전명저총서DB에서 검색하고, 신영일의 복원본을 근거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향약구급방』

『향약구급방』의 원간본(原刊本)은 없고 조선 태종 17년(1417) 7월에 의흥감군(義興監郡) 최자하(崔自河)가 간행한 중간본(重刊本)이 일본의 궁내청 도서료(宮內廳 圖書寮)에 소장되어 있다²⁾. 『향약구급방』의 발문(跋文)을 통해 고려 중기에 간행된 대장도감(大藏都監)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 『향약구급방』의 편제는 서목(書目) 및 상·중·하삼권에 「방중향약목초부(方中鄉藥目草部)」를 더하여 일책(一冊)으로 되어 있으며, 발문(跋文)만 있고 서문(序文)이 없는데 앞뒤의 표지를 합쳐 5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²⁾. 이 중 상권이 18目, 중권이 25目, 하권이 12目を 이루고 있다. 발문은 태종 17년(1417) 7월에 조봉대부(朝奉大夫) 안동유학교수관(安東儒學教授官) 윤상(尹祥)이 쓴 글로, 내용 중에 ‘昔大藏都監, 刊行是書, 歲久板朽, 舊本罕見’이라고 쓰인 것을 볼 때 본서는 고려시대 강화도에 설치한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것이므로 편찬된 시기를 대장도감의 설치기간인 고종 19년(1232)에서 高宗 38年(1251)사이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²⁾.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상권은 여러 가지 중독(食毒, 肉毒, 菌毒, 百藥毒, 蟹毒)과 목구멍이 막힌 경우(骨鯁, 食噎), 사상(卒死, 自縊死, 理熱喝死, 落水死, 中酒欲死, 斷酒方), 타박 및 쇠로 인한 창상(墮損壓竿傷折打破, 金瘡), 인후·구설·치아의 질환(喉痺, 重舌, 口瘡, 齒蝕匿)을 포함한다.

중권은 피부 질환(丁瘡, 發背癰疽癰, 乳癰, 腸癰, 凍瘡, 惡瘡, 漆瘡, 湯火瘡, 丹毒, 癰疹, 代指瘡, 癩疽, 附骨疽, 癰疥癩瘡, 陰癰陰瘡) 및 화살촉과 창에 찔린 외상(剪鏃木竹籤刺), 대소변을 포함한 복통·설사 질환(痔漏腸風, 心腹痛, 冷熱痢, 大便不通, 小便不通, 淋疾, 消渴, 小便下血), 이목비구의 질환(鼻衄, 眼病, 耳病, 口唇病)을 포함한다.

① 미끼사카에(三木榮)와 이태진은 『향약구급방』의 저자로 정안(鄭晏)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없다.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62-64./『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 p.114-121.

하권은 부인(婦人雜方) 및 소아질환(小兒雜方, 小兒誤吞諸物) 각각 설정되어 있고 기타 구급 잡병(水腫, 中風, 癲狂, 瘡疾, 頭痛, 雜方)이 있다. 이상은 모두 53目이다. 뒤이어 「복약법(服藥法)」, 「약성상반(藥性相反)」, 「고전록험방(古傳錄驗方)」, 「수합법(修合法)」이 있고 부록으로 「방중향약목초부」가 붙어 있다.

각 제목 아래에 두 줄로 주(註)를 달아 그 질병에 대해 간략히 해설하고, 종류, 복약방법 등을 간략히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명과 병증에 대한 우리말을 이두로 표현한 것도 있다²⁾. 방문(方文)은 알기 쉽게 향명(鄉名)과 속운(俗云)으로 덧붙이기도 하였다. 각 질환에 대한 처치는 주로 한두 가지의 단방약이 주가 되고 있지만 간혹 서너 가지의 복합처방도 보인다. 약물의 내복(內服)·식치(食治)와 더불어 침구(鍼灸), 위법(熨法), 목욕법(沐浴法), 점안법(點眼法) 등의 처치와 함께 금기, 예방과 치료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대원칙을 말하기도 한다. 『향약구급방』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치법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겠다.

「방중향약목초부」는 180종의 국산 약재의 속명(俗名), 기미(氣味), 독의 유무, 감별법, 수치(修治), 채취시기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향약구급방』의 본문 중에는 「방중향약목초부」에 기재되어 있는 약물 이외에도 약 40여종⁸⁾의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발문」의 내용은 『향약구급방』의 효용이 좋고 우리나라 백성에게 이롭게 하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유용하고 쓰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구 판본을 대신하여 의흥감군 최자하의 지대한 공로로 인하여 새로이 발간함에 그의 공을 칭송하고 있다.

2. 『향약구급방』에 나타난 침구법과 외치법의 내용과 특징

1) 침구(鍼灸)

『향약구급방』에 보이는 침법은 구법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침의 활용도 다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본문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가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데는 소똥 속의 콩을 태워 재로 만들어 곱게 간 다음, 먼저 이가 나지 않는 곳을 침으로 찔러 피를 조금 내고 이것을 바르면 좋다(理牙齒不生, 取牛糞中豆, 燒灰細研, 先以針刺之, 小血出, 卽以灰塗之, 良. 『鄉藥救急方』 上卷, 齒蚌匾. 신영일 복원본, p.39)

어금니가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데는 암땀똥끝이 둥근 것 과 숫땀똥끝이 뾰족한 것 을 같은 양으로 곱게 갈아 놓고 침으로 먼저 이가 나오지 않는 곳을 찌른 다음, 약을 붙인다(理牙齒不生, 雌雞屎頭員者雌, 雄雞屎頭尖者雄, 右等分細研, 以針刺齒不生處, 貼之. 上卷, 齒蚌匾. 신영일 복원본. p.40)

먼저 헌데를 14내지 21장 정도를 뜨고 침으로 딱지를 제거하여 속살이 드러나면 약을 상처 위에 고르게 바른 다음 그 위를 기름종이로 덮어 주며 하루에 두번 바뀐다(...先灸瘡頭二三七壯, 以針去痂, 令露赤肉, 後貼藥, 遍塗腫處, 以油紙, 付其上, 日二易之. 中卷, 丁瘡. 신영일 복원본 p.45).

만약 땀을 뜰 수 없으면 헌데에 침을 놓아 피를 내고 기운을 통하게 한 다음 약을 붙여도 좋다(若不灸, 針其瘡頭, 出血通氣, 後貼藥, 妙. 中卷, 丁瘡. 신영일 복원본. p.45)

어제정창의 끝이 허열게 되고 침을 수 없이 아픈 데는 먼저 침으로 흰 부위와 언저리를 찔러 구멍을 내고, 흰 부위를 찔러 즙을 내서 그곳에 떨어 주어 주면 낫는다(理魚臍丁瘡, 頭白, 痛不可忍, 以針刺瘡上及四畔, 取白菴汁, 滴孔中, 差. 中卷, 丁瘡. 신영일 복원본, p.45)

또한 정창이 검정공과 비슷하게 생긴 것은 큰 침으로 흰 부위와 언저리를 찌르고 선달에 잡은 돼지 머리뼈를 태워 재로 만든 다음 달걀 흰자에 개서 하루에 세번 갈

아 붙힌다(又瘡頭如黑豆, 以大針刺瘡四畔中央, 用臘月豬頭骨, 爲灰雞子清調付瘡上, 易三. 中卷, 丁瘡. 신영일 복원본, p.45)

또한 헌데를 아물게 하면서 안으로 삭히는 처방은 빛이 나는 좋은 황명교 한 냇을 물 반 되에 넣고 녹인 후 황단 한 냇을 넣고 다시 서너번 끓여 식힌 다음 닭털에 발라 헌데를 쓸어주는데, 농이 생기지 않은 것은 곧 줄어들고 농이 생긴 것은 침으로 그곳을 뚫으면 농이 나오고 바로 아물어든다(又斂瘡內消方, 好光明膠一兩, 水半升消膠了, 入黃丹一兩, 再煮三五沸, 又放溫冷, 以雞毛掃在瘡口上, 如未成膿即消, 如成膿則用鍼針其中, 即膿出便消. 中卷, 發背癰疽癰乳癰. 신영일 복원본, p.49)

만약 (눈)안에 죽은 피가 있으면 침을 놓아 죽은 피가 나오게 해야하며, 장차 치료가 다 되면 풍열을 치료하는 약을 장복하여 오장을 진정시키고 잘 조리해야 하는데(...若內有惡血, 以針引之, 將理差後, 長服理風熱藥, 鎮養五臟, 不爾. 中卷, 眼. 신영일 복원본, p.91)

이와 같이 침으로 소출혈(小出血)을 돕거나, 구법 이후에 딱지를 제거하거나, 창두(瘡頭)를 침자(針刺)후 약물을 첩부(貼付)하거나, 침자후 약물을 도포(塗布)하거나, 농출(膿出)을 유도하거나, 악혈(惡血)을 제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의 혈위를 이용하거나 이론에 따른 침법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다. 침과 구를 병용하는 경우와 또한 구를 사용치 못 하는 경우에 침을 사용하는 경우도 보인다. 『향약구급방』에서 침법은 주로 정창(丁瘡), 발배옹저(發背癰疽)문에 나타난다.

구법은 침법에 비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구법은 통처(痛處)에 시술한 경우가 많으나 인중(人中), 제중(臍中), 장강(長強)혈 등의 특정 부위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치료 횟수를 3·4장, 14·21장, 100장, 3·400장, 7·800장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하고 호전될 때까지 수를 헤아리지 말라고도 한다.

무릇 지네, 벌, 뱀에 쏘이거나 물린 독에는 썩으로 뜸

을 뜨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만약 쏘이거나 물렸을 때 바로 뜸썩으로 서너장을 뜨면 독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어 곧 낫는다. 뱀에 물렸을 때는 사람 똥을 두텁게 바른다. 또한 외쪽마늘을 얇게 썰어서 물린 곳 위에 놓고 썩으로 뜸을 떠서 속까지 뜨거워지면 곧 낫는다(凡蜈蚣蜂蛇螫毒, 無過艾灸. 若值螫咬, 即用艾炷灸三四壯, 則毒氣不入於內, 便差. 蛇螫毒, 人屎, 厚塗之. 又取獨頭蒜, 薄切安於螫處, 以艾灸熱通即愈. 上卷, 螫咬毒. 신영일 복원본, p.12)

늦은 봄에서 초여름까지는 개가 많이 발광하는데 계견(미친개)이라 한다. 만약에 사람이 미친개에 물리면 발광하다가 죽는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물린 곳에 하루에 한장씩 백일간 뜸 백장을 뜨고 술, 돼지고기,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처음에 상처가 아문 것만을 보고 곧 병이 다 나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치료하기 어렵고 큰 화가 곧 이르러 하룻만에 죽을 수도 있으며 매우 위험한 것이다. 비록 뜸을 댔더라도 반드시 위의 약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春末夏初, 犬多發狂, 謂之獠犬, 俗云狂犬, 若人逢此獠犬咬, 必發狂, 以至於死, 必灸其上百壯, 不飲酒及食豬犬肉. 凡一日, 必須灸一壯, 若初見瘡差, 即言平復者難理, 大禍即至, 死在旦夕, 此所深畏, 雖灸, 必須用上項藥理之. 上卷, 螫咬毒. 신영일 복원본, p.13)

무릇 갑자기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홀리게 되면 칼에 찔린 것처럼 가슴과 뱃속이 뒤틀리면서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며 혹 피를 토하거나 코나 입에서 피가 나고 대변으로 피가 섞여 나오는데는 인중에 뜸 한장을 뜨면 바로 낫는데 낫지 않으면 다시 뜸을 뜬다(凡鬼擊者, 卒着人如刀刺狀, 胸腹內絞急切痛, 不可抑按, 或即吐血, 鼻口血出, 或下血, 灸人中一壯, 立愈. 不差更加灸. 上卷, 卒死. 신영일, 복원본, p.19)

무릇 사람이 물에 빠져 하룻밤 지난 것은 오히려 살아날 수 있으니 환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배꼽 위에 뜸을 뜬다(凡落水, 經一宿, 猶可活, 解死人衣, 灸臍中. 上卷, 落水死. 신영일 복원본, p.23)

무릇 정창은 13종이 있는데 오직 화정만 뜸을 떠서는 안 된다. 화정은 그 증상이 불에 데서 창이 난 것과 같이 창 위가 검고 그 주위에 거무스름한 진물이 흐르며 작고 붉은 좁쌀만한 물집이 있으니 뜸을 뜨거나 불로 짓

『향약구급방』에 나타난 침구법과 외치법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고찰

어서는 안된다(凡丁瘡十三種, 唯火丁, 不得下灸. 火丁, 其狀如火瘡. 頭黑, 四邊有煙漿, 又如赤粟米, 切忌灸及火烙. 中卷, 丁瘡. 신영일 복원본, p.44)

무릇 정종은 모두 뜸을 삼사백장 뜬 다음 도꼬마리 가운데 색깔이 같은 것만 취해 전초를 태워 재로 만들어 진한 식초에 개서 불히되 마르면 바꿔서 한다. 이렇게 하면 열 번이 다 안 되어서 뿌리가 빠지며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좋다(凡丁腫, 皆艾灸之, 至三四百壯, 後用蒼耳根莖葉, 但取一色, 燒取灰用醇醋和如泥塗之, 乾則易之, 不過十度, 卽拔根出, 神良. 中卷, 丁瘡. 신영일 복원본, p.44)

냉창, 열창, 정창, 표저 등 일체의 혈고 붓는 것을 모두 치료하데... 먼저 헌데를 14내지 21장정도 뜸을 뜨고 침으로 딱지를 제거하여 속살이 드러나면 약을 상처 위에 고르게 바른 다음 그 위를 기름종이로 덮어 주며 하루에 두번 바꿔준다. 만약 뜸을 뜰 수 없으면 헌데에 침을 놓아 피를 내고 기를 통하게 한 다음 약을 붙여도 좋다(通理冷熱一切瘡腫, 釘瘡, 瘰癧方... 先灸瘡頭二三七壯, 以針去痂, 令露赤肉, 後貼藥, 遍塗腫處, 以油紙, 付其上, 日二易之. 若不灸, 針其瘡頭, 出血通氣, 後貼藥, 妙. 中卷, 丁瘡 신영일 복원본, p.44-45)

즉, 발배라고 하니 부부생활 술 밀가루음식 고기 마늘을 금해야 한다. 바로 뜸을 뜨지 않으면 독기가 앉으로 들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마땅히 헌데 위에 뜸 칠팔백장을 떠야한다(... 卽名發背也, 卽禁房室酒麵肉蒜, 若不卽灸, 則毒氣入內殺人, 當瘡上各七八百壯. 中卷, 發背癰疽癰乳癰. 신영일 복원본, p.47)

발배, 응저는 처음에 피부 안쪽에 모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반드시 혈게 되는데, 이때는 마늘을 동전만한 크기로 두껍게 잘라 종기 위에 놓고 뜸의 수를 계산하지 말고 뜸을 뜬다(凡發背癰疽, 初覺皮肉間有異, 如是必作瘡者, 切大蒜, 如銅錢厚片, 安腫上, 灸之. 中卷, 發背癰疽癰乳癰. 신영일 복원본, p.48)

또한 터졌거나 터지지 않은 발배나 응저에는 메주 세 되에 물을 넣고 잘 찼어서 삼꾼 두께로 떡을 만들어 환부에 붙이고 그 위에 뜸을 떠서 속까지 뜨겁게 해야 하는데 너무 뜨겁게 하여 데지 않도록 한다(又發背癰腫,

已潰未潰, 全跛三升, 小與水和熟搗成泥, 作餅子, 厚三分, 安腫上, 列灸之. 中卷, 發背癰疽癰乳癰. 신영일 복원본, p.48)

표저에... 간혹 뜸 백장을 뜬다(瘰癧者... 或灸百壯. 中卷, 瘰癧. 신영일 복원본, p.63)

다섯 종류의 치질을 치질을 치료하는데... 또한 장강혈에 뜸을 100장 뜨면 낫지 않는 것이 없다. 혈은 미골의 끝에 있다(理五痔... 又方灸長強穴一百壯, 無不差. 穴在脊骨端. 中卷, 痔漏腸風. 신영일 복원본, p.69)

귀 안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것은 풍독이 쌓여서 생긴 것이니, 마땅히 누런 겨자를 곱게 갈아 식초에 개서 조그맣게 만든 다음, 귀 앞의 맥이 뛰는 곳에 붙이고 그 위에 뜸을 떠서 따뜻하게 한다. 너무 뜨거워서 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뜨거우면 겨자떡을 잠시 떼었다가 다시 붙이고 뜸을 뜨되 아픈 것이 멎을 때까지 한다(理耳內痛如刀刺, 此風毒滯聚所致, 當用黃芥子細末, 醋和作小片, 貼耳前脈動處, 以艾灸其片子上, 令溫與熱, 不至大熱傷膚, 覺痛熱則去片子, 有頃復貼灸之, 以痛定爲限. 中卷, 耳. 신영일 복원본, p.96)

버드나무. 양목은 잎이 짧고 류목은 가지가 길다. 꺾질과 뿌리는 응저를 치료하며 꽃은 맛이 쓰며, 성질은 차고 독이 없다. 악창을 치료하는 데는 이것을 붙이고 뜸을 뜬다(柳楊木葉短柳木枝長皮根理癰疽花味苦寒無毒主惡瘡宜貼灸主惡瘡, 宜貼灸. 『方中藥目草部』. 신영일 복원본, p.15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법은 대부분 쑥을 이용한 직접구(直接灸)를 사용하였으나 마늘, 메주, 염교, 겨자, 버드나무 등을 이용한 간접구(間接灸)의 형태도 보인다. 뜸이 응급처치에도 선택되었으며 뜸과 약을 잘 병행할 것과 뜸 치료 후 음식 금기를 제시하고, 특정 질환에 구법의 사용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향약구급방』에서는 침법을 외과적 처치로 시행하고, 구법은 매우 다양한 질환에 여러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위법(熨法)

위법이란 약물을 초열(炒熱) 혹은 증자(蒸煮)하여 베로 싸거나 물품을 가열한 후에 직접 환부에 접촉하여 온열자극을 가하는 일종의 외치법으로, 『향약구급방』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15회 정도 소개되고 있다.

갑자기 쓰러져 맥이 뛰지 않는 경우에 다리미[熨斗]를 뜨겁게 하여 양 옆구리를 따뜻하게 찜질한다(理卒死無脈... 又灸熨斗多里甫伊, 熨兩脇下. 上卷, 卒死. 신영일 복원본 p.19).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몽둥이나 돌에 맞아 상처를 입게 되면 피가 손상되어 막히고 적체되어 기가 끊어져 죽을 것 같이 되는데, 이러한 것과 말에서 떨어져 다친 것을 치료하는 처방은 깨끗한 흙 다섯되를 시루에 넣고 물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쪼 다음 반으로 나누어 이것을 오래된 천으로 여러 번 싸서 아픈 부위를 따뜻하게 찜질한다. 너무 뜨겁게 하여 피를 손상시키지 말며, 차가워지면 바꾸주면서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한다(治從高墮下, 及爲木石所傷, 凡是傷損, 血瘀凝積, 氣絕欲死, 無不理之, 落馬亦理, 淨土五升, 蒸之令溜, 分半, 以故布數重裹之, 以熨病上, 勿令大熱破血, 冷即易之, 取差止. 上卷, 墮損壓竿傷折打破. 신영일 복원본 p.26).

목구멍에 갑자기 독기가 침범해서 찌르는 것 같이 아픈 것을 치료하는 처방은 상륙자리공을 썰어 뜨겁게 구운 다음 형겁으로 싸서 그곳을 찜질하는데 식으면 바뀌서 계속하면 바로 낫는다(又神仙秘密法, 喉中卒被毒氣攻痛者, 切商陸者里宮, 灸令熱, 隔布熨之, 冷即易, 立愈. 上卷, 喉痺. 신영일 복원본 p.34).

노소를 막론하고 치닉으로 벌레가 먹어 몇 년이 되어도 낫지 않는 데는 작맥쥐보리과 고희엽박넝으로 삼국사기에서는 “신라인은 호를 박이라 한다.”고 했다. 삼십 매를 잘 씻어 놓고, 작맥을 길이는 이촌, 넓이는 일촌, 두께는 오피온 정도로 만든 다음 박넝으로 싸서 오육십개를 만든다. 이것을 삼년된 식초에 담궜다가 한낮이 되면 두개를 꺼내서 불에다 구워 따뜻하게 만든 다음 입에다 넣고 이의 양쪽을 찜질하는데 이것이 식으면 다시 한다(又

齒齩牙虫, 積年不差從小至老, 雀麥鼠矣包衣, 右用苦瓠葉朴葉, 羅人謂瓠爲朴, 三國史出, 三十枚洗淨, 取雀麥, 剪長二寸許, 廣一寸厚五分, 以瓠葉裹了, 作五六十裹, 以三年醋漬之, 至日中, 以兩裹火中炮令熱, 納口中齒外邊, 熨之, 冷更. 上卷, 齒蚘匿. 신영일 복원본 p.39)

유옹과 투유(무릇 젖이 나오지 않아 안에서 맷힌 것을 투유라고 하는데 유옹보다 급하다)에는 버드나무 뿌리껍질을 잘 찢어 불로 따뜻하게 하여 형겁 주머니에 넣고 이것으로 찜질하되 차가워지면 바뀌서 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 무릇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낫지 않을 때는 이 방법을 쓰면 잘 낫는다(乳癰妬乳, 凡乳汁不得洩內結, 名妬乳, 乃急於癰, 以柳根皮, 熟搗, 火溫帛囊盛熨之, 冷更易, 甚驗凡衆療不差, 用此則差. 中卷, 發背癰疽癰乳癰. 신영일 복원본 p.49).

갑자기 바람을 맞아 가렵고 두드러기가 생겨 굵었다니 창이 생기고 진물이 나면서 먼저 가렵다가 뒤에 아픈 것을 치료하는 처방은... 또한 여러 가지 처방을 쓰더라도 낫지 않는 데는 상륙자리공뿌리를 곱게 찢어 식초에 넣고 잘 익을 때까지 고와 진흙처럼 되면 형겁에 싸서 환부에 대고 그 위에 뜨거운 돌을 놓아 찜질하되 차가워지면 바꾸어서 한다(卒得風瘙癢疹, 搔之生瘡汁出, 先痒後痛方... 又百方不差, 取商陸根者里宮, 搗熟, 用醋煎熟, 和如泥帛裹, 裹上溫石繫着熨之, 冷後易之. 中卷, 丹毒癰疹方. 신영일 복원본 p.60).

중풍으로 한쪽을 쓰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데는 생솔잎 여섯 말에 소금 두되를 넣고 잘 섞은 다음 자루에 넣고 찌서 뜨거워지면 환부를 찜질하는데, 식으면 뜨거운 것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다. 너무 뜨거워 데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루에 서너번 찜질하면 좋다(理中風, 半邊不遂, 用生松葉搗六斗鹽二升, 相和盛布囊中蒸之, 承熱熨患處, 冷更易, 熱不至傷肌, 日三四熨之良. 下卷, 中風. 신영일 복원본 p.116)

이 외에도 탈항, 소변불통, 구안와사, 부인, 소아에 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위법에는 다리미[熨斗], 흙, 상륙뿌리, 작맥, 버드나무 껍질, 탕자, 소금, 생부추, 하늘타리, 파뿌리, 생솔잎 등이 다양하게 쓰인다.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그 내용

만 익힌다면 의원이 없는 궁촌벽지의 사람도 쉽게 응용할 수 있다. 특히 중풍으로 반신불수에 생술잎과 소금을 이용한 위법은 중국 의서에는 보이지 않는 『제중입효방(濟衆立效方)』에 연원을 두고 한국 의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어 내려간 고유 치료법¹²⁾으로 평가받고 있다.

3) 목욕법

질병 치료에 약재를 이용한 목욕법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무릇 단독을 치료하는 단방 약은 생지황, 공익, 부평, 수조류말, 번루별꽃 등을 각각 찢어 붙인다. 삭조말오줌 나무를 끓인 물에 술을 조금 타고 목욕을 하면 최고로 좋다(凡丹毒... 又方煮蒴藿出上湯, 以小酒和而浴之, 最妙. 中卷, 丹毒癰疹方. 신영일 복원본 p.60).

피부가 가려운 것을 치료하는 데는 질러 잎을 달여서 씻으면 좋다(理皮膚風痒, 煮蒴藿葉浴之, 良. 中卷, 丹毒癰疹方. 신영일 복원본 p.61).

어린이의 돌림병을 목욕시켜 치료하는 방법은 복숭아 잎 일곱 냇을 곱게 썰어 물 다섯 되에 넣고 열 번 끓어오를 정도로 달인 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온도를 알맞게 하여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목욕을 시켜서 땀이 나오게 하면 낫는다(小兒時氣病浴法, 取桃葉七兩細剉, 以水五升, 煮十餘沸, 去滓, 看冷煖, 避風, 浴令汗出, 差. 下卷, 小兒方. 신영일 복원본 p.109).

오늘날에도 한약재를 이용한 목욕법을 많이 응용하고 있듯이, 이 당시에도 피부병과, 어린이 시기병(時氣病)에 씻기고 또한 땀을 내어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기타 외치법

각 질병편 중에서 하권 안병(眼病)에는 특히 약재를 달인 탕, 산, 환, 즙으로 세척하는 점안법(點眼法)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눈동자가 무엇에 상해서 터진 것을 치료하는데는 소의 오줌을 하루에 두번씩 눈가에 떨어뜨려 넣고 바람을 쏘이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검은 눈동자가 터진 것도 치료한다(理睛爲所傷損破, 以牛溺點眥內日二, 避風, 黑睛破亦差. 中卷, 眼. 신영일 복원본 p.90).

눈에 붉고 흰 예막이 생긴 것을 치료하는데는 숫참새 똥을 곱게 갈은 다음 사람의 젖에 넣고 다시 갈아 안쪽 눈초리에 떨어뜨려 주면 예막이 없어진다(理眼生赤白翳, 以雄雀屎, 細研, 人乳汁和研, 點內眥, 則翳自消. 中卷, 眼. 신영일 복원본 p.90).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약재를 침부(貼付)하거나 인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갑자기 무엇에 얻어 맞아 눈알이 튀어 나왔을 때 목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바로 제자리에 밀어 넣고 놀라게 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그런 다음 사방에 고약을 붙이거나 생지황을 짓찧어 두텁게 붙여서 바람이 침범하여 들어가지 않게 한다(理眼忽被撞着睛出, 眼帶未斷, 當時納入臉中, 但勿驚觸, 可四畔摩膏, 及以生地黃, 細搗, 厚付之, 無令外風侵擊. 中卷, 眼. 신영일 복원본 p.90-91).

이는 응급한 경우에 약재에 구애받지 않고 실생활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5) 예방과 금기

예방은 적극적인 치료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치아를 잘 조양하는 법이 눈에 띈다. 오늘날에도 응용할 수 있을 듯하다.

이를 조양하는 방법은 주염나무 열매 두 꼬투리와 소금 반냥을 함께 벌겍게 구운 다음 부드럽게 갈아서 밤마다 이를 닦으면, 한 달 뒤에는 흔들리는 것, 피가 나는 것, 벌레 먹은 것 등이 다 낫고 이가 단단해진다(養齒法, 以皂莢兩挺, 鹽半兩, 同燒令通赤, 細研, 夜夜用揩齒, 一月後, 有動者齒及血齲齒, 並差, 其齒牢固. 上卷, 齒蛀匿. 신영일 복원본 p.39).

눈병과 산후 예방에 관한 부분도 다루고 있다.

…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구리그릇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눈을 찜질하는데, 눈을 꼭 감고 뜨지 말며 또한 손으로 눈을 비비지도 말아야 한다. 물을 떠서 찜질하다가 물이 식으면 그만둔다. 만약 눈병이 생겼으면 하루에 서너 번 하고, 눈병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루에 한두 번 하면 눈이 밝아지는데, 이 방법은 눈에 핏기가 선 것과 눈꺼풀 주위가 가려운 것을 치료하는데도 최고로 좋다. …대체로 피는 따뜻하게 해주면 순환이 잘 되어 영양을 좋게 하는데, 눈을 풀어 주는 데는 전적으로 피를 잘 조양해야하니 만약 눈에 바람을 쏘았거나 냉기를 입었으면 더운 물로 눈을 찜질해주는 것이 아주 좋다(...著理眼疾法, 盛熱湯, 滿銅器, 以手掬熨眼, 眼堅閉勿開, 勿以手揉眼, 但掬湯沃, 湯冷即已. 若有疾一日三四爲之, 無疾日一兩次沃, 令眼明, 此法最理赤眼及瞼際痒 …大率血得溫榮, 釋目全要血養, 若衝風冒冷, 則沃之, 極有益. 中卷, 眼. 신영일 복원본 p.90).

무릇 산실은 바람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나, 옷이나 이불을 너무 두텁게 입고 문을 꼭 막아 너무 덥지 않게 해야 하는데 너무 더우면 주리가 열려 쉽게 바람이 들어가 정신이 혼모해진다(大底, 產室但無風爲佳, 然不可衣被帳褥太暖, 太暖則腠理開, 易於中風, 便昏冒. 下卷, 婦人雜方. 신영일 복원본 p.102).

『향약구급방』에서는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눈병을 막을 수 있도록 알리고, 산후에 몸을 따뜻하게 함으로 한의학적 산후관리를 하도록 지도하면서도 지나친 난방으로 도리어 또 다른 산후풍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몽하고 있다.

금기는 주로 음식에 대한 금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견에 물린 데는 땀 백장을 뜨고 술, 돼지고기, 개고기를 먹지 말고(下卷, 螫咬毒), 발배의 경우 부부생활, 술, 밀가루 음식, 고기, 마늘을 금해야 하며(中卷, 發背癰疽癰乳癰), 중풍 치료 중에 차와 밀가루를 피할 것을(下卷, 中風) 말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임신 중에 음식 금기를 다음과

같이 더욱 강조하고 있다.

대개 임신 중에 달걀과 마른 잉어를 함께 먹으면 아기가 창이 많이 생긴다. 또한 닭고기와 찹쌀을 함께 먹으면 아이에게 촌충이 많이 생긴다. 또한 참새고기와 된장을 함께 먹으면 아이의 얼굴에 검은 점이나 기미가 생긴다. 또한 토끼고기나 개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병어리나 언청이가 된다. 또한 오디와 오리 알을 함께 먹으면 아이를 거꾸로 낳는다. 또한 참새고기나 술을 먹으면 아기가 자라서 음탕한 짓을 하며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줄도 모른다. 또한 양의 간을 먹으면 아이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 또한 자라를 먹으면 아이의 목이 짧아진다. 또한 오리 알과 개고기를 함께 먹으면 아이가 병어리가 된다. 방향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곳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면 반드시 유산을 한다(凡妊娠, 食雞卵及乾鯉魚, 令子多瘡. 又食雞肉及糯米, 令子多寸白虫. 又食雀肉并豆醬, 令子滿面多黚黯黑子. 又食兔肉犬肉, 令子無音聲, 或缺脣. 又食樞并鴨子, 令子倒出. 又食雀肉飲酒, 令子淫情亂, 不畏羞恥. 又食羊肝, 令子多厄. 又食鼈, 令子項短. 又食鴨子并犬肉, 令子無音聲. 勿向非常之處入小便, 必半產殺人. 下卷, 婦人雜方. 신영일 복원본 p.104).

앞서 보았던 산후관리와 함께 임신 중 음식 금기를 통해서 산전에도 주의를 기울여 충분한 관리가 필요한 의미로 여겨진다. 간혹 특정 질환에 특정 약물을 금하는 경우도 보인다.

오직 버들잎이나 등대풀을 먹고 생긴 중독에 감초를 달인 물을 쓰지 않는 것은 성질이 상반되어 독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唯大戟澤漆毒, 不用甘草湯, 以其相反, 故增毒也. 上卷, 百藥毒. 신영일 복원본 p.11)

『향약구급방』 하권 끝에 「복약법」에서 섭생의 주의와 음식금기를 말하고, 또한 「약성상반」에서 특정 약물에 따른 음식 금기를 따로 말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향약구급방』에 나타난 침구법과 외치법의 내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침법은 단순 외과적 처치로 시행하고, 구법은 이보다 매우 다양한 질환에 여러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위법, 목욕법, 점안법 등 외과적 처치들이 소개

되고 있다. 이는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그 내용만 익힌다면 의원이 없는 궁촌벽지의 사람도 쉽게 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음식에 대한 금기를 많이 언급하였고 예방에 관한 내용도 볼 수 있었다. 추후 『향약구급방』에서 보이는 질병의 개념 및 질병관, 질병과 약재의 분류와 감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3. 『향약구급방』 간행의 실용적 의의

『향약구급방』의 간행 의의는 서문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본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온다. 본문 하권 12목 「고전록험방(古傳錄驗方)」 끝에 모든 처방과 처방을 끝내고 다음과 같은 글로 마무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한 것은 총 53부로 모두 급한 때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약과, 표리 한열을 다시 잘 살피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비록 효과가 있는 단방이지만 표리·한열을 살핀 다음에 써야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잘못 써서 해를 입을까 걱정해서이니 사대부(士大夫)들이 잘 살펴 쓰기를 바랄 뿐이다(右總五十三部, 皆倉卒易得之藥, 又不更尋表裏冷熱, 其病皆在易曉者錄之, 雖單方効藥, 審其表裏冷熱然後用者, 亦不錄焉, 恐其誤用致害也. 庶幾士大夫審而用之, 下卷, 古傳錄驗方. 신영일 복원본 p.126).

이는 서문을 대신할 수 있는 좀 더 뚜렷한 간행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급한 때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약을 적고 있다. 이는 향약을 말하고 있다. 급한 때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약을 말함으로 향약을 통해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이다. 이는 고려 중기 이후 향약의학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책 제목에서부터 향약을 붙이고, 책의 부록으로 많은 향약을 포함한 약물의 목록을 싣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약재 또한 주로 한두 가지의 단방약이 사용되고 있다. 앞서 보았듯 침구법과 외치법에 쓰이는 재료 또한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쉽게 알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적고 있다. 여기서 말한 53부는 상권 18목과 중권 25목, 하권 12목 중에 「고전록험방」 앞에 나온 질병에 대한 처방과 처방이 아닌 「복약법」, 「약성상반」을 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대부분 구급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의학 지식을 익히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병증과 표리한열(表裏寒熱)을 살피지 않아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구급에 관한 실용서임을 밝히고 있다. 오히려 복잡한 병인, 병기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책 제목에 보이는 구급방에 충실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중에게 쓰일 수 있도록 목적의식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다음에서도 『향약구급방』의 실용성을 엿볼 수 있다.

무릇 어린아이는 몸이나 혈이 연하고 여러 쉽게 질병에 감염되며, 자리면서 앓는 오변구증(五變九蒸)도 변화가 여러 가지이므로, 한 가지 약물로 능한 비를 모두 실을 수 없으니 지금 대략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것만을 기록한다(小兒方, 凡小兒血肉柔脆易, 染於疾而五變九蒸, 變改萬端, 非單方之所能具載, 今略記, 易行方. 下卷, 小兒方. 신영일 복원본 p.109).

이는 하권의 「소아방(小兒方)」 편명을 설명하는 글이다. 즉, 어린아이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와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약물과 처치를 모두 실을 수 없기에 몇몇 질병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것만을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 인종 14년(1136)에 의업(醫業)과 주금업(呪噤業)으로 나누어 선발하였는데 응시 과목에 이미 『소문경』, 『갑을경』, 『명당경』, 『침경』, 『구경』 등의 시험과목¹⁾이 들어와 있었음에도 앞서 살펴보았던 『향약구급방』에서 보여주는 외치법은 특정의 혈위를 이용하거나 이론에 따른 침법

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곧 『향약구급방』이 당대의 의학 수준을 반영하기보다는 실용성에 바탕을 둔 간행 목적이 분명했던 책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사대부들은 잘 살펴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로 『향약구급방』 편찬 당시인 고려 중기의 사대부들로 한정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쓰인 사대부의 용례²⁾를 참고할 때 이 책은 의학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원이 아닌 글을 읽고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관리에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의학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처음부터 궁촌벽지의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초(甘草)의 경우가 그렇다. 감초의 경우 여러 중독(中毒) 질환, 후비(喉痺), 구창(口瘡), 발배(發背), 대지창(代指瘡), 부인잡방(婦人雜方) 등에 10여회 처방이 보인다. 또한 감초가 다른 약보다 약효가 우수한 경우와 감초를 써서는 안 되는 경우, 감초가 들어간 약에 피해야 할 음식을 적고 있기도 하다. 본문에 나타난 편찬자의 감초에 대한 평가를 보겠다.

감초는 비록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지만 왕왕 모아 놓고 있는 자가 많고 독을 푸는데 제일 좋으므로 없어서는 안 된다(甘草, 雖非我國所生, 往往儲貯者多, 而解毒尤妙, 故不可闕焉. 上卷, 肉毒. 신영일 복원본 p.6).

감초는 꼭 필요한 약제로 대상에 따라서 누군가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약물이라고 보고 있다. 향약의 범주에서 벗어난 감초의 경우 본문에서 비록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지만 왕왕 모아 놓고 있는 자가 많고 독을 푸는데 제일 좋으므로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대상에 따라서 누군가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약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서각(犀角)·대서(帶犀)의 경우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 치루장풍(痔漏腸風)에 금가루[金屑]를 쓰는 곳도 보인다. 응담, 사향, 녹각, 금가루[金屑], 은그릇 등의 고가의 약재와 기구 사용은 비록 『향약구급방』에서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일반 백성이 바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일선 행정 관료를 포함한 사대부라면 응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책의 활용에 있어서 사대부를 염두에 두고 간행한 내용이 보인다. 『향약구급방』 중권 「부골저(附骨疽)」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인다.

외용으로는 침이나 뜸을 쓰고 안으로는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마땅히 여러 처방이 나오는 큰 처방집을 검토해서 써야 할 것이다(外用針灸, 內用下藥, 宜檢大方中. 中卷, 附骨疽. 신영일, 복원본, p.64).

이는 부골저의 치료에 있어 침구치료와 용약(用藥)이라는 큰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향약구급방』의 활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이 책에서 제시하는 처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여러 처방과 의론을 담고 있는 의학서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류는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약구급방』은 의학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원이 아닌 글을 읽고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관리들로 하여금 일반 백성에게 의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일반 백성들은 쉽게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의학적 내용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고려시대에는 '사대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해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광철은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비석, 묘지명, 개인 문집 등을 통해 사대부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고려 전기에 쓰인 용례를 볼 때 사대부는 전기부터 사용되었으며 이때 그 대상은 주로 조정에서 활동하는 관료층이었으며 학문적 기반을 일정하게 갖춘 부류이며 관료 가운데에서도 무반을 사대부로 지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했다. 고려 후기에 쓰인 용례를 볼 때 무인집권기 이후 사대부의 용례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도 사대부는 관료층을 말하며 후기로 내려오면서 사대부의 범주 속에는 관료 가문의 미입사자(未入仕者), 퇴직관료를 포함하는 등 그 범주가 확대된다고 보고 있다.(김광철, '고려시대 士大夫의 용례', p.71-98.)

III. 결 론

『향약구급방』은 책 제목에 향약과 구급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따라서 향약의학과 구급의학의 초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향약구급방』에 나타난 치법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침법은 구법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침의 활용도 다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침으로 소출혈(小出血)을 돕거나, 구법 이후에 딱지를 제거하거나, 창두(瘡頭)를 침자(針刺)후 약물을 첩부(貼付)하거나, 침자후 약물을 도포(塗布)하거나, 농출(膿出)을 유도하거나, 악혈(惡血)을 제거하고 있다. 특정의 혈위를 이용하거나 이론에 따른 침법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다. 침과 구를 병용하는 경우와 또한 구를 사용치 못 하는 경우에 침을 사용하는 경우가 보인다. 침법은 주로 정창(丁瘡), 발배옹저(發背癰疽)문에 나타난다.
2. 구법은 침법에 비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구법은 통처(痛處)에 시술한 경우가 많으나 특정 혈위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치료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한다. 대부분 전통적으로 쓰인 쑥을 이용한 직접구였으나 마늘, 메주, 염교, 겨자, 버드나무 등을 이용한 간접구의 형태도 보인다. 뜸이 응급처치에도 선택되었으며 뜸과 약을 잘 병행할 것과 뜸 치료후 음식 금기를 제시하고 특정 질환에 구법의 사용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침법은 외과적 처치로 시행하고, 구법은 매우 다양한 질환에 여러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3. 위법(熨法)은 갑자기 쓰러져 맥이 뛰지 않는 경우, 타박상, 피부병, 탈항, 소변불통, 구안와사, 중풍, 부인, 소아에 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위법에는 다리미, 흙, 상륙뿌리, 작맥, 버드나무 껍질, 탕자, 소금, 생부추, 하늘타리, 파뿌리, 생솔잎 등이 다양하게 쓰인다.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

들로 그 내용만 익힌다면 의원이 없는 궁촌벽지의 사람도 쉽게 응용할 수 있다고 본다.

4. 약제를 이용한 목욕법이 피부병과, 어린이 시기병(時氣病) 등에 응용되고 있다. 안병(眼病)에는 특히 약제를 달인 탕, 산, 환, 즙으로 세척하는 점안(點眼)법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약제를 첩부(貼付)하거나 인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5.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예방을 강조한다. 치아를 잘 조양하는 법, 눈병 예방과 산후에 몸을 따뜻하게 함으로 한의학적 산후관리를 이끌고 있다. 금기는 주로 음식에 대한 금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향약구급방』 하권 끝에 「복약법」에서 섭생의 주의와 음식금기를 말하고, 또한 「약성상반」에서 특정 약물에 따른 음식 금기를 따로 말하기도 한다.
6. 『향약구급방』은 책 제목에 있듯이 향약과 구법에 충실하고 있다. 『향약구급방』에 나타난 치법의 내용과 특징을 고찰해 볼 때 급할 때에 향약을 비롯한 쉽게 얻을 수 있는 약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쉽게 알 수 있는 질병을 열거하면서 의학 지식을 익히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병증과 표리한열을 살피지 않아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구급에 관한 실용서로 만들었다. 아울러 의학을 아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선 행정 관료를 포함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치법과 처방은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그 내용만 익힌다면 의원이 없는 궁촌벽지에서 누구나 쉽게 응용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문헌

1. 맹웅재 외 15인. 한의학통사. 1판. 서울 : 대성의학사. 2006 : 151, 129.
2. 신영일. 『鄉藥救急方』에 대한 연구(復原 및 醫史

- 學的 考察).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 2, 171, 175, 176, 177.
3.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 탐구당. 1981 : 141.
 4. 미끼사카에(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 自家出版. 1962 : 62-4.
 5. 이태진.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 1판. 서울 : 태학사. 2002 : 114-21.
 6. 이현숙, 권복규. 고려시대 전염병과 질병관(『향약구급방』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2007 ; 제88호 : 582.
 7. 韓國醫學大系 1권. 鄉藥救急方. 서울 : 여강출판사. 1992 : 103.
 8. 김신근. 한국의학사. 1판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66.
 9. 김광철. 고려시대 士大夫의 용례. 석당논총. 1988 ; 14 : 71-8.
 10. 강연석. 『향약집성방』의 향약의학 연구(향약본초의 처방용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49.
 11. 안상우, 최환수. 『의방유취』 처방편의 구성과 특징.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0 ; 6호(1) : 7-8.
 12. 이덕호, 김홍균, 안상우. 『제중입효방』에 관한 의학적 고찰(立效散을 중심으로). 한국 의사학회지. 2008 ; 21(2) : 38.
 13. 한의고전명저총서DB. <http://jisik.kiom.re.kr/>